

성경졸업고사 신구약정리 300선 (한국성서대학교)

NO	♣ 구 약	핵심 포인트
▶1.	“래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2.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시고, 셋째날 물과 물(땅)을 분리하셨다. 넷째 날에 해, 달, 별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1장)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안식하심
▶3.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6~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심
▶4.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열매를 따먹는다. 그로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3:15)	☞인간의 범죄로 에덴동산에서의 추방/ ☞여자의 후손은 예수그리스도를 상징/
▶5.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는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죽인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신다.(창4:1-9)	☞인류의 첫 자녀/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6.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아다와 쉴라 두 아내가 있었다. 아다는 육축치는 자의 조상 야발과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조상 유발을 낳고, 쉴라는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두발가인을 낳았다.(창4:19-22)	☞1부1처제가 라멕에서 깨짐/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의 특징
▶7.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6:5)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6:9)라고 노아를 소개한다.	☞노아 소개
▶8.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 8명은 방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 7일 후부터 40일간 비가 내리고 땅의 샘들이 터졌다. 이때 노아의 나이 600살이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었다.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새가 죽었다. 물이 빠지는 기간도 150일 이상 걸렸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지 약 377일 후에 땅을 밟을 수가 있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다.(창7-9장)	☞홍수에서 노아의 8명 가족이 구원얻음

▶9.	<p>의로운 노아의 후손들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류가 이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선하게 살아야함에도 타락한 인간들은 악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징표를 통해 약속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된다.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한다. 어떠한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탑을 쌓는 것이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11:4)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고 뭉쳐 살자고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바벨탑을 통해 보여주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한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나타난 현상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들의 죄 된 마음에서 시작된 탑이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다.(창11:1-9)</p>	☞ 바벨탑 사건과 언어혼잡
▶10.	<p>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러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세 가지 약속을 하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12:2)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p>	☞ 아브라함과의 약속
▶11.	<p>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4개 연합국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 롯이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 가서 소돔 고모라 백성과 재물과 롯을 구출해온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난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반기며 그를 축복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14:18)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다.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준다.</p>	☞ 아브라함의 승리/멜기세덱을 소개
▶12.	<p>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로 그 후사를 잇고자 했다. 그러나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4~5)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셨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15:6)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다.</p>	☞ 아브라함의 의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
▶13.	<p>아브라함이 80살이 넘어도 자녀가 없자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얻고자 한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사라를 멸시하고, 그 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 여종 하갈의 멸시를 호소하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견디지 못한 하갈은 도망한다. 하갈은 ‘브엘라헤로이’ 샘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는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때 90세 된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창21:5) 이 아이가 ‘웃음’ 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삭’ 이다.(창16-17장)</p>	☞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100세에 낳은 이삭
▶14.	<p>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신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있는 곳이기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6번에 걸쳐 기도한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치 말아달라고, 다시 기도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는 응답을 받아낸다.(창16:16-33)</p>	☞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15.	<p>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다.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농담으로 여긴다. 천사가 롯과 가족을 이끌어 낸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창 19:26)</p>	<p>☞ 롯의 가족의 부끄러운 구원과 아내의 죽음</p>
▶16.	<p>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하신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간 후 지시하신 곳에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한다. 이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는 여호와와 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숫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산을 내려온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22:14) ‘여호와와 이레’는 ‘여호와 이레’의 땅이름이 주어진다.</p>	<p>☞ 아브라함의 순종(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숫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여호와 이레)</p>
▶17.	<p>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리브가에게서 낳는다. 동생 야곱은 사냥을 나갔다가 곤비하여 돌아오는 에서에게 떡과 팔죽으로 장자권을 산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아버지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둡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도록 명한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한다. 야곱은 형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음식을 만들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낸다. 그리고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다.(창25-27장)</p>	<p>☞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빼앗는 야곱</p>
▶18.	<p>야곱은 도망가는 길에 루스에서 돌을 배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그곳 이름을 ‘벧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고 제사를 지낸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낸다. 7년 동안 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무보수로 열심히 일한다. 7년 후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다. 자신을 속인 삼촌에게 항의하자, 삼촌 라반은 자신들의 풍속에 동생을 먼저 시집보내는 일이 없다고 변명하며, 7일간만 지내면 다시 라헬을 아내로 주어 결혼시켜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야곱은 7일후 라헬을 아내로 맞는다. 그러나 그 몸값으로 또 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한다. 14년을 삼촌 라반에게 무보수로 일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축복하신다. 야곱은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고, 그 두 아내의 몸종 실바와 빌하를 또한 아내로 맞이했다.(창 28-31장)</p>	<p>☞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p>
▶19.	<p>야곱은 네명의 아내 레아, 라헬, 빌하, 실바를 통해 12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다. 그가 가장 사랑한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난다.(창29-30장)</p>	<p>☞ 야곱의 아내들</p>
▶20.	<p>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압복강에 이르러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린다.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 모두 강을 건너게 한 후, 혼자 남아 밤새도록 여호와와 사자와 씨름한다. 그 일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다리를 절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창32:28)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칭한다.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다.</p>	<p>☞ 압복강에서 받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p>

▶ 21.	<p>야곱은 라헬이 죽은 후 누구보다도 더 요셉을 사랑하며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의 곡식 단이 자신의 곡식 단에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다.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하였고, 목축하는 곳에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한다. 그때 만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제안한다. 만형 르우벤은 후에 몰래 와서 요셉을 꺼내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속셈이었다. 그러나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들은 유다의 제안을 듣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은 20에 팔아 버린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숫염소의 피를 발라 아버지에게 보이며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처럼 꾸민다.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야곱은 절규한다.(창37장)</p>	☞ 요셉의 꿈과 고난
▶ 22.	<p>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다.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각각 꿈을 꾸게 된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할 것이라고 해몽해 준다. 그러나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치 않는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어떠한 술사와 현인들도 그 꿈을 해석해 내지 못한다. 그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하게 되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한다. 요셉은 3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다.(창39-41장)</p>	☞ 애굽 총리가 되는 요셉
▶ 23.	<p>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때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에 곡식을 팔아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하여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낳는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창41:51-52)</p>	☞ 요셉의 가족
▶ 24.	<p>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한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바로 왕의 허락 하에 고센 땅에 정착하여 400년 동안 살게 된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을 모으고 축복한다.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간통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겔과 그 남자들을 잔혹하게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된다. 유다는 사자새끼이며, “유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49:10)라고 말하므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다.(창46-50장)</p>	☞ 아버지와 만나는 요셉
▶ 25.	<p>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고센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하게 성장한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다. 애굽의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한다. 그들은 고통가운데서 노예로 살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낸다. 애굽 왕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이 중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한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애굽 왕 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고로 남자 아이를 살린다.(출1장)</p>	☞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애굽왕
▶ 26.	<p>레위 족속 중에 아르람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준수하여 숨겨서 석 달을 키운다. 점점 자라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된 어머니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아이를 상자에 넣어 나일 강에 띄운다. 그 누이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 상자를 따라 가도록 한다. 나일 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공주가 상자를 발견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다. 이 아이가 ‘물에서 건졌다’ 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이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게 되고, 그 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란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40년간 살게 된다.(출2장)</p>	☞ 모세의 출생

▶27.	<p>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 이 일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그와 결혼하고 목축을 하면서 40년간 은둔 생활을 한다. 80살이 된 모세에게 호렘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3:14)</p>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28.	<p>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첫 번째 피 재앙은 애굽의 나일 강과 하수가 모두 피로 변하여 먹지 못하게 되는 7일간의 재앙이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다. 궁궐과 집의 침실과 부엌과 그릇에 개구리가 가득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게 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만 내린다. 온 파리 떼가 집마다 가득하여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다. 가축과 짐승들에게 악질이 생겨 죽어 나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안전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다. 티끌이 독종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괴롭게 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큰 우박을 내려 농작물과 짐승과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 우박은 불덩이가 섞여서 내려왔다.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는데, 우박 때문에 상하였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다.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메뚜기 떼가 갉아 먹었고 푸른 것은 남아나지 않았다. 집과 거리에 메뚜기가 가득하였다. 강박한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다.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이 캄캄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였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이셨다.(출7-11장)</p>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29.	<p>“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12:5~11)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피해가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재앙을 면치 못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 갔다 즉, 유월(pass over) 했다는 뜻으로 유월절이 제정된다. 그 집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애굽인이든지 다른 이방인이든지 무론하고 피가 묻어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유월절이다.</p>	☞유월절 유래
▶30.	<p>출애굽 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낫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16:31)고 했다.</p>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
▶31.	<p>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은 뒤따라온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신다. 이스라엘은 물샘 열둘과 종려 칠십 수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장막을 친다.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 모세는 화난 모습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민20:12)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음이다.(출14-18장)</p>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 32.	<p>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한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전한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옆에서 붙들므로 해가 질 때에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물리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출17:15) ‘여호와 닛시’는 ‘여호와와의 깃발, 승리’라는 뜻이다.</p>	<p>☞아말렉과의 전쟁(여호와 닛시)</p>
▶ 33.	<p>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20:3~17) 십계명은 1~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다.</p>	<p>☞시내산에서 준 십계명</p>
▶ 34.	<p>제사장의 의복에는 우림과 둠뭇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 가슴에 넣도록 하였다. 제사 종류는 5가지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제정하였고, 제사 방법으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방법이며, 요제는 넓적다리 등의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방법이며, 거제는 높이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방법이다. 전제는 포도주 등을 제단에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 방법이다.(레1-5장)</p>	<p>☞5제사와 4제사방법</p>
▶ 35.	<p>레위 인에게 도피성 6과 42성을 허락한다. 12지파가 땅을 분배 받을 때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성에 분산되어 기거하였다.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이 두 분깃을 차지한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갔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몸을 피할 수 있게 제정된 성이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이 세워졌고 서편에는 헤브론과 세겜과 게테스가 세워졌다.(민35:1-8, 신4:41-43)</p>	<p>☞12지파 땅분배와 도피성</p>
▶ 36.	<p>나실인의 규례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 씨나 껍질도 먹지 않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사는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실인과 제사장의 차이는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레위인 남자만 가능했지만, 나실인은 지파 상관없이 남,녀 모두 가능했다.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시체는 만질 수 있었으나 나실인은 가족의 시체마저도 접촉하지 못했다.(민6:1-9)</p>	<p>☞나실인의 특징</p>
▶ 37.	<p>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은 들어 갈 수 없었고 1년에 한 차례 대 속죄일(7월10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 갈 수 있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에는 일곱 금 촛대와 진설병을 놓은 떡 상, 향을 피우는 금향로가 있었다. 지성소에는 여호와와의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십계 돌판, 만사를 담은 금 향아리가 있었다. 법궤 위에는 두 그룹이 마주보며 날개를 모으고 있고,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형태로 임했다. 이곳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 칭한다.(레16장)</p>	<p>☞성막기구와 속죄일</p>

▶38.	<p>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라 하라” (민6:23~26)</p>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
▶39.	<p>7절기는 안식일, 유월절(1월14일), 무교절(1월15-21일->7일간, 밀의 초실절 15일), 칠칠절(오순절, 맥추절, 보리의 초실절), 나팔절(7월1일), 속죄일(7월10일), 초막절(7월15일, 장막절, 수장절)이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신명기 16:16) 라고 하신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성전에서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이다.(출23:14-17, 레23장)</p>	☞유대인의 절기
▶40.	<p>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등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다 해도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자유함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또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의 규례를 제정하여 주셨다.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레위기 25:4-5) 일곱 안식년이 지난 다음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제정하였고, 이때는 모든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찌라” (레위기 25:10-13)</p>	☞안식년과 희년
▶41.	<p>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한다. 금은 보화에 눈이 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길을 나선다.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길을 가지 않고 벽에 선지자의 발을 비비는 나귀를 발람은 세 번 채찍으로 때린다. 그때 나귀의 입이 열리고, 나귀가 말을 한다. 발람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 앞에 펼쳐진 상황을 목도한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천사의 칼에 발람은 죽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 그러나 궤역한 길로 들어선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알려준다. 첫째는 모압여인을 통한 미인계이고, 둘째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다. 그 계략에 이스라엘이 빠져 행음하게 되고 그 결과 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다.(민22-25장)</p>	☞하나님을 거역한 발람 선지자 이야기
▶42.	<p>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을 좇아 에돔 땅을 둘러 갈 때에 길이 험하여 마음이 상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한다. 그리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하며 불평한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백성이 죽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21:9)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렸을 때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4~15) 불뱀에 물린 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놋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민21:1-9)</p>	☞그리스도의 예표 놋뱀

▶43.	<p>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한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말한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작은 존재라고 한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은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긍정적 보고를 하지만, 백성들은 분노하여 이들을 돌로 치려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40일의 정탐 일을 1년씩 환산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모두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다. 불신앙의 이스라엘은 당시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모두 죽는다. 2명의 긍정적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한다.(민13-14장)</p>	12정탐꾼 이야기
▶44.	<p>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리도록 하였고 매 삼년에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 십일조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14:28-29)</p>	십일조의 사용 용도
▶45.	<p>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죽음 후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수1:5~6)고 말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을 얻은 여호수아는 싯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고, 신분이 발각되었을 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영으로 돌아온다.</p>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46.	<p>하나님께서서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찌니라 하시매 주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와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수6:3~5)고 하시므로 여리고 성 함락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신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전쟁이 아닌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무너뜨리신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다.</p>	여리고성의 함락
▶47.	<p>여리고 성이 함락된 후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로 무리를 정제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제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수6:26) 여리고 성을 다시는 세울 수 없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가장 영적 암흑기인 아합 왕 시대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게 된다. “그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말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주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상16:34)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한 히엘은 두 아들 아비람과 스굽을 잃는다.</p>	여리고성의 재건축과 저주
▶48.	<p>하나님께서서는 여리고성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첫 번째 성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아간은 자기 탐욕을 따라 온 이백 세겔과 금 오십 세겔과 시날 산 외투 한 벌을 자신의 장막 땅속에 감춘다.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진 후 작은 아이 성 전투가 시작되었다. 너무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성이었지만, 아이 성 전투는 36명의 군인을 잃고 패배로 끝난다. 패배의 원인으로 제비를 뽑으니 유다지파의 아간이 걸렸고,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임을 알게 된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을 모두 잡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모든 소유물을 불사른다.(수7장)</p>	아간의 범죄

▶49.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 시니라” (수2:11)고 말하고 정탐꾼을 도와준다. 정탐꾼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 준 대가에 대한 약속의 징표로 집에 붉은 리본을 달도록 했다. 기생 라합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집에 붉은 리본을 달았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붉은 리본이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은 구원을 얻는다.	☞정탐꾼을 살린 기생 라합의 믿음
▶50.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24:14-15)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51.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왼손잡이 에훗과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이 있다.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다. 시스라는 도망하여 헤벨의 집에 들어가 잠드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그를 죽인다. 기생의 자녀인 입다는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서약한다. 슬프게도 그의 무남독녀가 그를 처음으로 맞이한다.(사사기)	☞사사 이야기
▶52.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린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구원의 소명을 확인하고자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내놓고 마당은 젖지 않고 양털만 젖어 있는 표적을 구한다. 그 다음날은 반대로 마당은 젖고 양털은 마르는 표적을 구한다. 기드온은 바알단을 훼파한 이후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얻는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은다. 32,000명이 길르앗 산에 모인다. 기드온은 전쟁이 두려운 자는 집으로 가도록 한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는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으니 물을 먹게 하여 개처럼 활아 먹는 자는 다 돌려보내도록 한다. 남은 자가 300명이었다. 기드온은 “삼백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리고 향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삿7:16)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치게 하면서 미디안 군대를 혼란케 한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다. 무수히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쫓아낸다.	☞기드온 사사와 300용사
▶53.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은 나실인이며 사사이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블레셋 남자와 수수께끼 내기를 한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삼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삿14:14) 그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낸다. 삼손은 옷 30벌을 그들에게 준다.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마리를 잡아 두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 그들의 곡식밭에 풀어 밭을 불태워 버린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처가식구를 죽인다. 삼손은 나귀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죽이고 그 곳 이름을 ‘라맛 레히’ 라 부른다. 그리고 목이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 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삿15:19) ‘라맛 레히’ 는 ‘턱뼈의 산’ 이란 뜻이고, ‘엔학고레’ 는 ‘부르짖는 자의 샘’ 이란 뜻이다.	☞삼손 사사의 이야기

▶ 54.	삼손은 소렉 골짜기의 기생 들릴라에게 빠진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 일천일백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다.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한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털의 비밀을 말한다.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 감옥에서 멧돌을 돌리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릴 때 삼손을 노리개 감으로 불러온다.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그곳에 있던 3,000천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숫자 보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삿16장)	☞삼손의 최후
▶ 55.	사사시대의 모습에 대해 “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전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삿21:25)고 사사기는 결론짓는다.	☞사사시대의 특징
▶ 56.	사사시대에 한 가정이 기근을 만나 베들레헬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 베들레헬은 ‘떡집’이란 뜻의 단어이다. 음식이 풍성해야 할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 이방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 이민 간 사람은 엘리멜렉과 그 가정인데, 그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이다. 아들들은 모압에서 오르바와 룯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10년의 이민 생활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는다. 나오미는 베들레헬에 흉년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한다. 나오미는 그녀들을 만류하며 돌려보낸다. 시어머니의 권고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 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룯1:16) 룯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간다. 베들레헬으로 온 룯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벧을 낳는다.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 룯은 이방여인으로 다윗왕의 증조모가 된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	☞아름다운 모압 여인 룯 이야기
▶ 57.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이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아껴 주었다. 그러나 한나는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한나는 하나님의 회막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다. 당시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가 대낮부터 취한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슬픔을 엘리에게 고하고 엘리는 그녀에게 축복한다. 그 후 한나는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젖 떼 후에 바쳐져 제사장과 사사로서 살아가게 된다.(삼상1장)	☞사무엘의 탄생
▶ 58.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홉니와 비느하스이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사 음식도 자기들 마음대로 먹었고,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하였다. “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삼상2:30)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 엘리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신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전사한다. 40년간 사사로 있었던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다.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였다. 엘리의 뒤를 이어 사무엘이 사사가 된다.(삼상2장)	☞엘리 가정의 저주
▶ 59.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고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로 사사를 삼는다. “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죄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삼상8:3)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부정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청한다. 400년의 사사시대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 왕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첫 왕으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신다.	☞사무엘의 아들들

▶ 60.	<p>이스라엘의 첫번째 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으나 점점 변해 갔다. 그의 첫 번째 범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디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 지낸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상13:13~14) 두 번째 범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발생한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 즉, 남녀, 소아, 젓 먹는 아이, 가축, 소유물을 다 죽이라고 하셨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고 소와 양의 좋은 짐승을 가지고 온다. 이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 따르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 왔다고 핑계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변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0~22) 사무엘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을 수 없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 다음</p>	☞ 첫번째 왕 사울과 그의 범죄
▶ 61.	<p>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 형들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듣는다.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삼상17:45)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선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거인 골리앗은 쓰러진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의 칼을 뽑아 그 목을 벤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올라가고 블레셋은 도망한다. 이 공로로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다.</p>	☞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
▶ 62.	<p>사울은 전쟁터에 나가기만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삼상 18:7)는 것을 듣고 그 때부터 다윗을 경계한다.</p>	☞ 여인들의 다윗을 향한 칭송
▶ 63.	<p>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다. 사울은 수급을 타는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 한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여 도망한다. 그 후로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한다. 요나단은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도망치도록 돕는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삼상20:17)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준다.</p>	☞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 64.	<p>눅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막 진설병(제사떡)을 주어 배고픔에 있는 다윗을 돕는다.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은 적국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한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위험한 인물 다윗을 죽이자고 한다.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한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매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삼상21:13)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미치광이 취급하여 쫓아 버린다.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하여 아둘람 굴에 거한다.</p>	☞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

▶ 65.	<p>다윗이 엔디게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삼천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온다.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인줄 모르고 그곳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게 된다. 그 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죽이자고 한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며 사울 왕 뒤로 가서 옷자락만 벤다. 그리고 동굴을 나간 사울 왕에게 나타나 외친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찌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삼상24:11) 사울 왕은 울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윗과 헤어진다. 그러나 그 후 십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은 또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친다. 다윗은 밤에 아비새와 함께 단 둘이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한다. 둘은 삼천 명의 군사들이 있는 진 한 중앙까지 들어간다. 그곳에는 사울 왕과 신하들이 잠들어 있다. 아비새는 허락만 하신다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건너편 산에 가서 외친다. 잠에서 깬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하며 떠난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다.</p>	☞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
▶ 66.	<p>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이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전사한다. 활을 맞아 중상을 입은 사울은 자기 부하에게 칼로 찌를 것을 요청하지만 왕을 죽이지 못한다. 이에 사울은 자기의 칼로 자살한다. 블레셋은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체를 뱀산 성벽에 못 박는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밤에 용사들을 보내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체를 가져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지낸다. 이로써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40년 행적이 끝난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다. (삼상 31장)</p>	☞ 사울의 최후
▶ 67.	<p>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길 원한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옷사가 손으로 잡는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 옷사를 죽이신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떨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찌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민4:15)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법궤는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기게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자신도 모르게 바지가 내려간다. 이것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경멸한다. 이 일로 평생 미갈은 자녀를 갖지 못한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한 상에게 밥을 먹도록 허락하여 돌봐주므로 우정을 지킨다. (삼하 6장)</p>	☞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다윗
▶ 68.	<p>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1:1~2) 라고 노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한다.</p>	☞ 시편1편 복 있는 사람
▶ 69.	<p>“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18:1~2)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구원이시다.</p>	☞ 시편18편 피난처 하나님
▶ 70.	<p>“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19:7~8)</p>	☞ 시19편 하나님의 율법

▶7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시22편은 노래하고 있다. 이 예언시는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라고 외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절규를 담고 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22:1)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의 옷을 나눌 것을 예언하고 있다. “내 겔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22:18)	☞시22편 그리스도의 고난예언
▶72.	시 23편에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시23:1~2)라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만족케 하시는 목자이심을 노래한다.	☞시23편 목자되신 하나님
▶73.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말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37:4~6)	☞시37편 인도하시는 하나님
▶74.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시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42:1~3)	☞시42편 영적갈망
▶75.	46편도 고라 자손의 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음을 노래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찌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46:1~3)	☞시46편 도움되신 하나님
▶76.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시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51:10) 다윗은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다.	☞시51편 다윗의 회개
▶77.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는 117편으로 2절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교훈시로 176절의 가장 긴 시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119:9~11)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10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신다.	☞시119편 하나님의 말씀
▶78.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121:1~3) 절망과 고난 속에서 성도는 눈을 들어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121편 우리의 도움되신 하나님
▶79.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127:1~3) 복된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이다.	☞시127편 하나님의 보호
▶80.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133:1~3)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개의 영상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흘러내리는 거룩한 기름과 혈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시온산까지 흘러 산천초목을 적시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의 존귀하고 고귀함을 노래한다.	☞시133편 형제의 연합
▶81.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찌어다” (시150:1) 마지막 시 150편에서는 하나님의 존전 앞과 온 우주에서 찬양할 것을 선포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시150:6)라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생명 있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한다.	☞시150편 하나님 찬양

▶82.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하느니라” (잠1:7)	☞ 지식의 근본
▶83.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1:1)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잃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 외에 모든 것을 사단의 손에 붙인다. 욥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모든 재물을 잃어 가난뱅이가 되고, 곧 이어 10명의 자녀 모두가 집이 무너져 죽는다. 욥은 “가로되 내가 모래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하고” (욥1:21)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온 몸에 악창이 생겨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그 곁을 떠난다. 욥의 세 친구는 그를 찾아와 위로한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함께 7일 동안 괴로워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며 회개하라 한다. 욥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은 이전 소유의 갑절을 허락하시고, 자녀도 다시 10명을 주신다.	☞ 고난을 이기는 욥의 이야기
▶84.	다윗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왕상3:4)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 천 번의 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 할 때에 그는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왕상3:9~10)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도 함께 준다. 솔로몬은 먼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다.	☞ 지혜를 구한 솔로몬
▶85.	솔로몬 왕의 지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두 창녀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았는데, 삼일 만에 한 여인이 잠자다가 아이를 눌러 죽인다.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여인은 다른 동료의 아이와 죽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 그리고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서로 주장한다. 현장을 본 사람도 없고, 갓난아이인 고로 그 얼굴에서 부모의 모습을 찾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왕은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누어 어머니에게 반씩 주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모성애를 통해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 방법이었고 적중했다.(왕상3:16-28)	☞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86.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며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12:1)고 교훈한다. 또한 결론적으로 “일의 결구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12:13)고 하므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과 삶의 의미가 있음을 말한다.	☞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
▶87.	솔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노래인 아가서는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8:6)고 사랑의 강렬함을 노래한다.	☞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 88.	<p>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뉜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의 통치로 이어진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은 막을 내리고 분열 왕국이 진행 된다. 북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 왕이 되고 남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왕이 된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가문이고 유다 지파는 다윗의 가문이다. 이때부터 분열된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으로 이어지고, 남 유다는 20명의 왕으로 멸망 전까지 이어진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왕상11-12장)</p>	☞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 89.	<p>이스라엘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무교절(유월절), 맥추절(칠칠절), 수장절(장막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북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했다. 여로보암은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여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한다. 두 번째는 율법에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여로보암 왕은 레위지파가 아닌 자로 제사장을 세운다. 세 번째는 절기를 자기 맘대로 바꾼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악이다. 이런 죄 때문에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왕상12:25-33)</p>	☞ 북이스라엘왕 여로보암의 죄
▶ 90.	<p>북이스라엘 오프리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왕위에 오른다. 오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왕이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오프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된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한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시집온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사건이 이 시대에 있었다.(왕상16:1-34)</p>	☞ 아합과 이세벨
▶ 91.	<p>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한다. 가루한 움큼과 기름 조금 밖에 없어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찾아가 먼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요구한다. 떡과 물을 사르밧 과부로부터 공짜 받은 엘리야는 그 가정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내린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된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앞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준다.(왕상17:1-24)</p>	☞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 92.	<p>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참 신이 누구인지 대결을 한다. 모든 백성이 갈멜산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850:1의 대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사르는 신이 참 신으로 판명되는 대결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간구하고 자해까지 하지만 응답이 없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른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승리이다. 즉시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붙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인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엘리야는 승리를 만끽한다. 그러나 이세벨은 기세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 엘리야는 로렘 나무 아래로 도망하여 그 곳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한다. 탈진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두 번씩이나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힘을 주어 하나님의 산 호렘으로 보내신다. 호렘 산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사명이었다. 사명을 다한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왕하2:11)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다.(왕상18-19장)</p>	☞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

▶93.	<p>“선지자의 생도 오십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걸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왕하2:7~9)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작별하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떨어뜨린 걸옷을 주어가지고 요단 물을 가르고 여리고로 간다. 엘리사가 벳엘로 올라 갈 때에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고 엘리사를 조롱한다. 이때 암곰 두 마리가 나와 놀리던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인다.</p>	☞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한 대가
▶94.	<p>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다.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하인 게하시를 통해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고 가라고 말한다.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에 화가 난 나아만은 돌아가려 하지만 그 신복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다. 나아만 장군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받아 달라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한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욕심이 생겨 그 제물을 몰래 받는다. 그 일로 인해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린다.(왕하5:1-19)</p>	☞ 엘리사와 문둥병자 나아만 장관
▶95.	<p>남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왕상12:1-11)</p>	☞ 남유다 왕 르호보암
▶96.	<p>아사왕은 선대왕들과 다르게 선한 왕이었다. 남색(동성애)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과 이방 신전을 제거한다. 자신의 친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른다. 아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다.(대하15:8-19)</p>	☞ 선한 아사왕
▶97.	<p>아하시야(여호아하스)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 야달라는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인다. 아하시야(여호아하스)의 아들들이 모두 살해 될 때에 갓난 아기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구출해 낸다. 그는 성전에서 요아스를 7년간 몰래 키운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남 유다의 방백들에게 왕자가 살아있는 사실을 알리고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 성전에서 모여 7살의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고 대관식을 거행한다. 야달라가 성전에 와서 이 광경을 목격한다. 그녀는 분노하며 소리치지만 이미 왕권은 요아스에게 넘어 갔다. 권력의 탐욕 속에서 자신의 손자들을 처참히 죽였던 악녀 야달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왕이 된 어린 요아스 곁에서 여호야다는 섭정을 하며 종교개혁을 이룬다. 요아스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는다. 40년 동안 요아스 곁에서 도와주었던 여호야다는 1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대하22-23장)</p>	☞ 야달라의 탐욕과 요아스 왕을 살린 제사장 여호야다
▶98.	<p>웃시야(아사랴)는 52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그러나 교만하여 지면서 하나님께 범죄 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한다. 그 일로 문둥병에 걸리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낸다.(대하26:1-23)</p>	☞ 문둥병에 걸린 웃시야
▶99.	<p>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 앗수르 산헤립의 침공으로 위기에 놓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한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15년의 생명연장의 기적을 체험한다.(왕하20:1-11) 그 뒤를 이어 12살의 어린 므낫세가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린다. 므낫세는 여호와와의 전에 이방신의 단을 세우고 아들을 불사르고 점치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다. 남 유다는 앗수르의 군대에 짓밟히고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는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므낫세는 알게 된다. 돌아온 므낫세는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고자 한다.(대하33:1-20)</p>	☞ 생명연장 받은 히스기야 왕

▶100.	<p>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여호와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모든 가증한 것을 없애며 하나님만 좇도록 한다. 그리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다. 안타깝게도 요시아는 브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노고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그는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 폐위 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 간다. 그 형제 엘리야김(여호야김)이 왕이 되지만 그는 바벨론 느브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한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된다. 여호야킨이 죽은 후 시드기야가 남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기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 왕은 거부한다. 그 결과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다. 결국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 유다도 멸망된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기를 보내게 된다.(왕하22-25장)</p>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남유다의 멸망
▶101.	<p>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귀족 출신의 소년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다. 바벨론은 똑똑한 왕족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단1:7~9)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정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왕이 주는 진미라 해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는 이일로 인해 사자 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모함했던 원수들을 사자 굴에 넣어 죽이신다. 다니엘은 왕이 네 번이나 바뀔 때까지 총리로 있게 된다.</p>	☞다니엘 과 세 친구
▶102.	<p>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한다. 왕은 그들을 사랑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려한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 그들을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신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12:3)</p>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103.	<p>70년의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을 하고,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한 후 성전을 재건축한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한다.</p>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104.	<p>에스더서는 하만의 계략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면서 에스더는 바사왕국의 왕후가 된다. 하만은 절하지 않는 왕궁 문지기 모르드개와 그 민족을 모두 말살시키려 한다.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였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놀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어느나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에4:13~14) 모르드개는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 유다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을 에스더에게 요청한다.</p>	☞왕후가 된 에스더

▶105.	<p>모르드개의 요청에 에스더는 3일 금식 후 왕에게 나아간다. 당시 왕비라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 4:15~16)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에스더 황후는 왕께 나아가고 모르드개와 함께 유대 민족을 구원한다. 그 이후 유대민족이 구원받은 날을 부림절로 지킨다.</p>	☞에스더의 결단
▶106.	<p>마지막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지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p>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107.	<p>이사야 선지자는 옷을 벗어 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왕을 설득하고 히스기야 왕은 끝내 앗수르와의 전쟁을 포기한다.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에서 벗어난다. 이사야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떠한 죄도 깨끗케 용서함을 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사1:18)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해 질 것이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 말씀한다.</p>	☞선지자 이사야
▶108.	<p>메시아의 탄생은 신비롭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사야는 예언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7:14) 처녀의 몸을 빌어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이것은 구원자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였다. 그 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p>	☞메시아 탄생 예언과 임마누엘의 뜻
▶109.	<p>“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1~2) 메시아는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당하신후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신다. 그 글이 이사야서 61장1-2절이였다. 읽으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신다. 예수님은 마치 임관식과도 같은 고향 회당에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은혜의 해를 전하러 오신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이다.</p>	☞메시아의 사역 예언
▶110.	<p>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과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사53:4~7)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메시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사망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므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p>	☞메시아의 고난 예언

▶ 111.	<p>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대항하지 말고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렘20:9) 나라의 멸망과 항복에 대한 예언은 그를 괴롭게 했다. 그는 침묵하려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힌다.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는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슬픈 메시지를 전한다. 그 일로 인해 예레미야는 옥에 갇힌다.</p>	☞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 112.	<p>“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33:2~3) 조국 남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피하며 예언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 줄 것이다. 그분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었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렘33:15~16) ‘한 의로운 가지’ 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를 이루실 것과 예수를 통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다.</p>	☞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 113.	<p>에스겔은 이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보게 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본다. 에스겔로 하여금 끊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다가오는 심판을 예언케 하신다. 그리고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슬픈 사건을 통해 공감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죽은 아내를 보내며 울지도 않고 그 슬픔을 탄식하며 견뎌낸다.</p>	☞ 에스겔 선지자
▶ 114.	<p>“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37:10)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본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포로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얻게 될 것을 희망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찌라” (겔36:26~27)</p>	☞ 마른뼈 환상을 본 에스겔
▶ 115.	<p>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신다. 호세아는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삼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는다.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흠으셨다’ 는 뜻이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는 뜻이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로암미 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는 뜻이다.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시 음탕한 길로 간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와 아내 삼으라 한다.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빚을 갚고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온다. 하나님은 고멜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4:6)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6:1)고 외친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같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6:6)</p>	☞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은 호세아 선지자

▶ 116.	<p>요엘은 ‘여호와와 날’의 징조에 대하여 기록하며 범죄한 백성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고 캄캄한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될 것이라 선포한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백백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욘2:2) 요엘은 범죄한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요엘은 권면한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욘2:12~13)</p>	☞ 여호와와 날을 예언한 요엘
▶ 117.	<p>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욘2:28)라고 선포하므로 성령이 오셔서 보여 주실 놀라운 일을 예언한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욘2:32)</p>	☞ 성령의 사역과 구원 예언
▶ 118.	<p>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치와 부정부패로 타락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가 패역한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암5:24)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라 말씀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8:11) 진정한 해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p>	☞ 뽕나무 농부 아모스 선지자
▶ 119.	<p>오바다서는 1장으로 구약성서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 매우 간결하고 짧은 내용이며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다. 그러므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관계이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악하게 대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옵1:3) 에돔의 교만함에 대하여 지적하며 심판받을 것을 말한다.</p>	☞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오바다
▶ 120.	<p>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써 ‘비둘기’라는 뜻이다. 요나는 앗수르의 수도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옴바로 도망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숨으려한다. 그러나 광풍이 일고 배는 난파 직전에 놓인다. 배에서 제비를 뽑게 되고 요나가 걸린다. 요나는 사실을 말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풍량은 잔잔해진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주께서 나를 깊음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욘2:3)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 주야를 있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온 요나는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왕과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한다.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적대국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분위기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의 회개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 달라고 성내며 투정한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려고 성을 나와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는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녕쿨이 자라 뜨거운 낮에 그늘을 만들어 요나를 시원케 한다. 요나는 박녕쿨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녕쿨을 갉아 먹게 하고 이튿날 새벽 박녕쿨은 시들어 버린다. 요나는 뜨거운 태양과 바람 아래서 자신을 죽여 달라 하나님께 또 성내며 투정을 부린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 박녕쿨을 그렇게 너는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이 넘는 이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p>	☞ 물고기 배속에 들어간 요나 선지자

▶121.	<p>“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4:2-3)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출생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한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미5:2) 다윗의 고향 베들레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p>	<p>☞메시아의 출생지를 예언한 미가 선지자</p>
▶122.	<p>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6:6~8)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송아지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p>	<p>☞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p>
▶123.	<p>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멸망을 모면했던 니느웨(앗수르 수도)가 다시 죄악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나훔 선지자는 예언한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1:2)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한다.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심판당하고 멸망한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였던 앗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며 유다를 위로하고 있다.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1:13)</p>	<p>☞나훔 선지자의 예언</p>
▶124.	<p>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의 기도를 드린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만 계시냐는 것과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의 부조리에 의문을 품는다. 하나님의 답변으로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다.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이 생긴다. 선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떻게 더 악한 이방인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대답으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2:4) 하나님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신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합3:17~18)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에 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자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텅 빌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한다.</p>	<p>☞하박국 선지자의 기도</p>
▶125.	<p>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는 뜻이다. 스바냐는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면서 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선포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3:17) 스바냐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선포한다.</p>	<p>☞스바냐 선지자</p>

▶126.	<p>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한다. 학개 선지자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독려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1:8)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보다 자기 집 짓는 일이 우선이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데 너희는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나?” 는 질문을 하므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동참하도록 꾸짖는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의미였다.</p>	<p>☞성전을 재건한 학개 선지자</p>
▶127.	<p>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축을 독려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찌어다 하리라 하셨고” (슌4:6~7)</p>	<p>☞스가랴 선지자</p>
▶128.	<p>스가랴는 메시아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한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슌9:9) 이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루어진다.</p>	<p>☞나귀타신 메시아를 예언한 스가랴</p>
▶129.	<p>성전이 완공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다시 율법을 버리고 신앙은 형식화 된다. 이방여인과의 결혼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3:8)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책망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3:10)</p>	<p>☞온전한 십일조</p>
▶130.	<p>말라기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료하실 것을 예언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4:2)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p>	<p>☞말라기 선지자의 회개 촉구</p>

NO	♣ 신약	핵심 포인트
▶ 131.	<p>셀류쿠스 왕조가 통치하던 시리아는 제사장과 귀족 계급(사두개인)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귀족계급인데, 이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 셀류쿠스 왕조 등 식민자들의 세력에 협조하면서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위탁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권력층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구약성서의 영감과 권위를 부인했고 천사나 마귀의 존재, 영혼의 존재, 부활도 부인했던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막12:18)라고 성서는 설명한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반면, 보수주의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구약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믿었고 종교의 전통을 강조했다며 국수주의를 부르짖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23:27) 그러나 이들은 외식주의자로 자기들의 이권과 지위를 지키는 선에서 구약성서나 종교의 전통을 지켰다. 이들은 지주계급이나 부유한 지방호족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이 침략자들에게 붙어 권력을 등에 지고 백성들을 착취한데 반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유대종교의 수호자인 것처럼 구약성서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웠지만 뒤로는 약탈과 착취를 일삼았다.</p>	☞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
▶ 132.	<p>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 그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1:1)로 시작한다.</p>	☞ 예수의 족보
▶ 133.	<p>마태복음 1장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밧세바), 마리아이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다가 부인이 되었고, 라합은 여리고성이 점령당할때 정탐군2명을 도와주어 구원을 받았던 기생이다. 밧세바는 다윗의 장수 우리야의 아내였으나 다윗이 아내를 삼았다.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이기도 하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로 예수님을 낳았다.(마1:1-25)</p>	☞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5여인
▶ 134.	<p>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엘리사벳이란 아내가 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성소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며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다고 대답한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병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사가랴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p>	☞ 세례요한의 탄생
▶ 135.	<p>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조용히 과혼하려는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린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1:21)</p>	☞ 구원자 예수
▶ 136.	<p>“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1:23)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아내를 데려온다.</p>	☞ 임마누엘 예수
▶ 137.	<p>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한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을 떠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다.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그 곳에는 있을 여관이 없다.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출산한다. 태어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인다. 그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2:11~14) 천사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한다.</p>	☞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

▶138.	동방(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으니 경배하러 왔다고 헤롯을 찾아간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메시아가 탄생하는지 묻는다. 미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2:6)고 알려준다.	☞ 동방박사의 경배
▶139.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 할 것이니 아기 메시아를 찾으면 알려달라 한다.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경배하기 위해 떠난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경배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2:11)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는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간다.	☞ 동방박사의 예물
▶140.	아기 예수는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가 예수를 보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한다. 안나는 선지자요 과부된 지 84년 된 할머니였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를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한다. 요셉과 그 가족은 헤롯왕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지낸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자행한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사렛에 정착하여 산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란 칭호가 붙는다.(눅2:1-52)	☞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
▶141.	세례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왔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3:4)	☞ 세례요한 소개
▶142.	메시아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다.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한다고 말하나 예수는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3:22)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주는 표시이다.	☞ 세례요한의 사역
▶143.	예수는 세례를 받은 후 성령에 이끌리어 40일간 금식하신다. 그리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 마귀의 시험은 3가지였다. 첫 번째로 마귀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고 한다. 굶주린 예수는 그 유혹을 물리치는데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며 물리친다. 이것은 물질의 유혹 시험이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를 성전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내리라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고 성서 말씀을 인용해 물리친다. 이것은 명예의 유혹 시험이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를 높은 산에 데려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옆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고 유혹한다. 예수는 “사단아 물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고 말씀으로 물리치신다. 이것은 권력의 유혹 시험이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시험을 통과한 예수를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눅4:1-13)	☞ 예수의 시험 받으심
▶144.	예수는 가버나움으로 가서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신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4:19)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는다.	☞ 제자를 부르신 예수
▶145.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하나 요한복음은 천지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시작된다. 창조이전에 ‘로고스’ (헬라이어) 즉, ‘말씀’ 이 계셨다.	☞ 말씀이신 예수

▶146.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1:3)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씀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4)	☞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147.	이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 하나님의 자녀 되는 법
▶148.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 영생에 대하여 묻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3:3)고 말씀하신다.	☞ 영생을 묻는 니고데모
▶149.	그리고 예수께서는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면 살도록 하신 광야시대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암시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4~16)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는다.	☞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150.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다. 그 여인에게 주께서 물을 달라 하신다. 그녀는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묻는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않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았다. 예수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4:14)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답한다. 예수께서는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니 그 말이 맞다” 고 하신다. 이에 여인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그 분께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해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 영생을 주시는 예수
▶151.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고 말씀하신다. 여인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안다고 말하자 예수께서 “내가 그로라” 고 말씀하신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한다.	☞ 예배하는 자세
▶152.	마태복음 5-7장은 산상설교이다. 5장에서 예수님은 8복에 대하여 설명하신다.(마5:1-12)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교훈하신다.(마5:13-16)	☞ 산상설교
▶153.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독교인의 황금율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7:12)	☞ 남을 대접하라
▶154.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레위)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예수를 비난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막2:17)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다.	☞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155.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신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10:2-3)	☞ 예수의 12제자
▶156.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난다. 예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깨우니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 제자들은 모두 놀란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자연만물의 복종을 통해 보여주신 사건이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들린 자가 무덤사이에서 나온다. 쇠사슬을 끊고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을 가졌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쫓겨나는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청한다. 허락하시니 돼지 떼로 들어가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몰살한다.(막5:1-20)	☞ 귀신들린자를 고치신 예수

▶157.	<p>“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12:31-32)</p>	<p>☞ 용서 못받는 죄</p>
▶158.	<p>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 달라 간청한다. 예수는 그의 딸을 고치러 그와 함께 집으로 가는 데 가는 도중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 가에 손을 댄다. 예수는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고 물으신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고 말씀하시며 멈추신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사실을 고한다.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고 말한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에만 손을 대도 낫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혈루병이 나았다고 고백한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고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걸음을 옮긴다. 예수님이 도착할 무렵 전령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고 한다. 예수는 좌절하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다. 그리고 죽은 딸에게 들어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눅8:54~55)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달리다꿈’ 은 아람어 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는 뜻이며 소녀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다.(막5:41)</p>	<p>☞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p>
▶159.	<p>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는다. 이 일로 세례요한이 헤롯을 책망하고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둔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날 춤을 추었을 때 선물을 약속한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한다. 헤롯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례요한의 목을 베므로 요한은 순교하게 된다.(마14:1-14)</p>	<p>☞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p>
▶160.	<p>예수는 가버나움의 벧새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한다. 저녁이 되어 배가 고프는 이들을 위해 예수는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놓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하신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따라 다닌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다” (요 6:47~48)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교훈하신다.</p>	<p>☞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p>
▶161.	<p>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질문하신다. 그때 제자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대답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신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16:16)고 대답한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신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후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명하신다.</p>	<p>☞ 베드로의 고백</p>
▶162.	<p>“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 16:24~25)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p>	<p>☞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p>

▶163.	<p>장막절(초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성전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온다.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묻는다. 이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예수는 사랑을 강조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것이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8:7) 예수는 땅에 무언가를 쓰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버리고 떠난다. 예수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녀를 보내신다.</p>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심
▶164.	<p>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 예수는 율법에 무엇이든 쓰여 있는지 그에게 묻는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눅10:27)라고 대답하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신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채하며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보아 주고 치료해 주고 주막에 누인다. 유대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요 종교인들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는 반면, 유대인이 상종도 안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자비를 드러가며 돕는다.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묻는다. 그리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다.</p>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65.	<p>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데 죽게 되었다. 예수께 사람을 보내 고쳐 달라 하였으나 예수는 이들을 더 유하시고 가신다. 도착해 보니 이미 장례를 치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슬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11:25~26)고 물으신다. 마르다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11:27)라고 대답한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한다. 이미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예수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하신다.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온다.</p>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166.	<p>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향해 멀리서 소리 지른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듣고 주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고 명하신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낫는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문둥병자 중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예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께 감사드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눅 17:17~19) 열 명 중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예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는 사마리아인인 그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p>	☞감사하는 1명의 문둥병자
▶167.	<p>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는 키가 작았고 세리였으며 죄인이었다. 예수는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시며 그 집에 유하시겠다 말씀하신다. 삭개오는 주님을 즐겁게 영접한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한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고 말씀하신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께 붓는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허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26:12~13)고 말씀하신다.</p>	☞삭개오의 구원과 마리아의 헌신

▶168.	<p>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겔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21:9) 호산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 한다’ 는 뜻이다.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p>	<p>☞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p>
▶169.	<p>예수께서 성전으로 가서서 뜰에서 여전히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21:13) 그리고 소경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 주신다.</p>	<p>☞ 성전은 기도하는 집</p>
▶170.	<p>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친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에 분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 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21:16~17)</p>	<p>☞ 아이들의 찬양</p>
▶171.	<p>예수께서 성전에서 두 렵돈(당시 이스라엘 화폐단위)을 연보하는 한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신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막12:44)</p>	<p>☞ 과부의 헌금</p>
▶172.	<p>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두 아들을 보좌 좌우편에 앉혀 줄 것을 부탁한다. 이에 10제자가 두 제자에 대하여 화를낸다. 예수께서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20:28)</p>	<p>☞ 대속물 되신 예수</p>
▶173.	<p>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온다.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4)고 말씀하신다. 한 알의 밀은 예수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 알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삶이다. 한 알의 밀알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삶일 뿐만 아니라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삶이다.</p>	<p>☞ 한 알의 밀이신 예수</p>
▶174.	<p>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를 예언하신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미혹이 올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끝까지 전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3~14) 말씀을 다 마치신후 자신이 이틀이 지나고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계책을 꾸미는데 유월절 명절에는 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말자고 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가롯 유다의 뜻밖의 제안에 계획을 수정한다. 예수의 제자 중 가롯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은 삼십을 받고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p>	<p>☞ 복음 전파와 세상의 끝</p>
▶175.	<p>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다. 그때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베드로는 절대 자신의 발을 선생님이 씻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하니 목욕까지 시켜 달라한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13:14)고 하신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교훈인 것이다.</p>	<p>☞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p>
▶176.	<p>예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며 주를 기념할 성만찬을 행하신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14:22~24)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간다.</p>	<p>☞ 성만찬을 통한 예수의 피와 몸</p>

▶177.	<p>예수는 성만찬을 한 그 날 밤 겿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도록 요청하신다. 그리고 고난의 잔을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 번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의 길을 걸기로 다짐한다.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 예수는 그곳에서 체포당한다. 예수를 체포하려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하숙 말고의 귀를 자른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26:52)하시고 말고의 귀를 고쳐 주신다. 그리고 자신만 체포하고 제자들은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예수는 붙잡히고 제자들은 도망간다.</p>	<p>☞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체포</p>
▶178.	<p>예수는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간다. 베드로는 그곳까지 따라간다. 그러나 계집종의 지적에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다. 심지어 저주까지 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26:75)</p>	<p>☞ 베드로의 3번 부인</p>
▶179.	<p>무리들은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기고 고소한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눅23:2)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한 후 헤롯에게로 보낸다. 헤롯은 예수에게서 이적을 볼까 기뻐하지만 예수는 대답이 없으시다.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낸다.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하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 줄지를 백성들에게 묻는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한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며 손을 물에 씻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의 피 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라한다.</p>	<p>☞ 빌라도의 판결</p>
▶180.	<p>예수는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신다. 예수를 대신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끌려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 예수는 골고다(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들이 같이 매달린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며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생각해 달라 간청한다.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23:43)고 말씀하신다.</p>	<p>☞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p>
▶181.	<p>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하신다. 그것을 십자가의 칠언(가상칠언)이라고 한다. 제1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눅23:34) 제2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23:43) 제3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19:26~27) 제4언: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27:46) 제5언: 내가 목 마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19:28) 제6언: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19:30) 제7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눅23:46)</p>	<p>☞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 말씀</p>

▶182.	<p>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사는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다. 예수가 운명하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27:51~53) 예수가 운명하시던 순간 하늘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며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운명하신 예수를 보며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 고백한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무덤에 장사한다.</p>	☞예수의 운명과 무덤
▶183.	<p>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요안나)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간다. 돌문이 굴러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은 없다. 천사가 나타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고 말하며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려준다.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진한다. 예수께서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p>	☞부활의 첫 증인
▶184.	<p>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힌 손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말한다. 예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까지 자신의 못 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신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20:28) 라고 고백한다. 주님은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 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고 세 번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는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다.</p>	☞의심많은 도마와 예수의 부활 목격
▶185.	<p>성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20:31)고 말한다.</p>	☞성경의 기록목적
▶186.	<p>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니 지금의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 날은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의 축제인 것이다.</p>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187.	<p>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간 땅에 머물며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 후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는 모습을 12제자와 500여명의 형제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는 것이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p>	☞성령을 받은 복음전도자
▶188.	<p>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16:7)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야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후 그를 대신할 제자를 제비 뽑는데 맛디아라는 사람이 뽑힌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죽은 후 움츠려 있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이들이 각기 자기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다.</p>	☞보혜사 성령의 강림

▶189.	<p>베드로가 설교 한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에 귀를 닫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분은 말씀하신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2:36)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해야 하는지를 베드로에게 물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급속한 성장을 한다.</p>	☞베드로의 설교
▶190.	<p>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만난다. 그들에게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 3:6) 그 앓은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p>	☞앓은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191.	<p>유대 대제사장과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행 4:10)고 앓은뱅이가 건강해진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임을 말한다.</p>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
▶192.	<p>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고 말씀한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p>	☞유일한 구원의 길
▶193.	<p>교회는 더욱 부흥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땅을 팔아 헌금한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난 후 마음이 바뀐다. 교회에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바친다. 아나니아가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땅 판 것의 전부냐” 고 묻자 전부라고 거짓말한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얼마를 숨겨 놓고 전부라고 하느냐” 하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죽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된 것이다. 몇 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 그 결과 아내도 죽게 된다.(행 5장)</p>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194.	<p>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한다. 그리고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은 일곱 집사를 세워 그들에게 맡긴다. 집사의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행 6:5~6)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세웠고 그 결과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제사장까지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p>	☞초대교회 7집사

▶195.	<p>스데반은 법정에서 교회와 예수를 변증한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성서의 맥을 설교한다.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도 죽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 죽이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인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7:59~60) 스데반 집사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스데반은 순교한다.</p>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196.	<p>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일어난다. 이러한 치유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빌립의 전도와 그의 능력을 보고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 다녔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 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 그러나 마술사였던 시몬은 돈을 주며 베드로에게 나도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한다. 베드로는 그에게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며 악함을 회개하라 말한다.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 길로 간다. 그곳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다. 이사야 53장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글을 읽는 그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세례를 베푼다.(행8장)</p>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197.	<p>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곳에서 옷을 맡아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사울은 스데반집사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므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옷을 맡았던 것이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 인증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는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총망 받는 유대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으러 다녔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간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 거기서 빛을 보고 하늘로부터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행9:4)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행9:5)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게 된다.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선지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된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도구로 사울을 사용하게 된다. 사울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다.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인데 자기 이름을 작은 자로 바꾸게 된다.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전도여행을 하며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p>	핍박자 사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됨
▶198.	<p>욥바에 다비다(도르가)라는 여 제자가 있는데 그만 죽게 된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욥바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간청하여 베드로가 욥바로 온다. 다락에 시체를 누웠는데,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며 다비다를 칭찬한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 한다. 그가 눈을 뜨고 살아난다. 이 일로 인해 욥바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행9:36-43)</p>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199.	<p>피장 시몬의 집에 기거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린다. 베드로는 율법의 불결한 짐승을 먹은 일이 없고 먹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세 번이나 이런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했으니 먹으라는 것이다. 무슨 환상인가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찾아온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행10:22)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이방인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한 것으로 인해 예루살렘교회의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설명한다.</p>	☞ 고넬료의 집으로 간 베드로
▶200.	<p>바나바는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일 년 동안 함께 복음을 가르친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11:26) 안디옥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p>	☞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처음 들은 안디옥 교회
▶201.	<p>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체포하여 죽인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는다. 유월절(무교절)이기에 바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베드로를 가둔다. 그 시간 베드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잔다.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고 이끌어낸다. 감옥을 탈출한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행12:1-19)</p>	☞ 베드로의 탈옥
▶202.	<p>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유대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로 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총회가 열리게 된다. 의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일 경우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 들였다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15:11)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행15:19~20)라고 말한다. 이 야고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된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번째 교회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의 경우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얻음을 가결하고 안디옥으로 편지를 보낸다.</p>	☞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문제

▶ 203.	<p>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한다.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르게 된다.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가 있을만한 강가를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거하게 되고 또 다시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자를 만나게 된다. 바울은 그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준다. 귀신이 나간 여종이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되자 그녀를 통해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 넘긴다. 바울과 실라는 배를 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힌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 한다. 기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진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한다. 그때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 간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울에게 묻는다. 그에게 바울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행16:31)고 대답한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하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p>	<p>☞ 빌립보 교회의 탄생과 바울</p>
▶ 204.	<p>바울의 복음을 들은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17:11)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p>	<p>☞ 베뢰아 교인의 열심</p>
▶ 205.	<p>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나와 고린도로 오게 된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바울의 선교를 돕는다.(행18:1-4)</p>	<p>☞ 바울을 돕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p>
▶ 206.	<p>드로아에서 다락방에 모인 무리에게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다. 밤까지 이어지면서 등불을 켜놓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청년을 살린다.(행20:6-12)</p>	<p>☞ 다시 살아난 유두고</p>
▶ 207.	<p>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성령의 뜻을 전한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고 주를 위한 자신의 마음을 장로들에게 전한다. 3년 동안 전한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잘 지키도록 부탁한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울며 이별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전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호송된다.</p>	<p>☞ 에베소교회와 바울</p>
▶ 208.	<p>사도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로마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롬15:28) 바울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했기에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땅 끝은 서바나였는데 지금의 스페인이다.</p>	<p>☞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p>
▶ 209.	<p>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다. 선원들은 사흘 동안 애써 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때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행27:22)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열흘이 넘어가면서 바울은 배에 있는 선원, 군인, 죄수 등 276명에게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고 위로의 말을 하며 음식 먹기를 권유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된다. 3개월을 멜리데 섬에 체류한 후 로마로 향한다.</p>	<p>☞ 로마로 후송되는 바울</p>
▶ 210.	<p>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로 거한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지도층 유대인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행28:31)고 성서는 증거하며 사도행전을 마친다.</p>	<p>☞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p>

▶ 211.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복음 전파를 위해 남은 인생을 드린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16~17)	☞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 21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3:23)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3:20)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4)	☞ 하나님의 은혜
▶ 213.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찾아 오셨다. 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6:23)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 받는다.	☞ 하나님의 사랑
▶ 214.	예수를 믿으며 죄와 사망으로 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1~2)	☞ 죄로 부터의 자유
▶ 215.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8:30)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불러 주시며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 216.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8:38~39)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 217.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10:9~10)	☞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 218.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10:13)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 이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므로 성서 말씀을 읽고 열심히 묵상하자.	☞ 구원을 주시는 예수
▶ 219.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거룩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 사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 영적예배
▶ 220.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열과 파벌형성, 교회의 규율의 부재를 듣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하며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전1:18) 바울은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구원이기에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2:2)	☞ 십자가를 통한 구원

▶ 221.	<p>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그때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주의 몸이고 피니 먹고 이 일을 기념하라 하셨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지켜 나갔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11:25)</p>	☞예수의 새언약
▶ 222.	<p>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12:3)</p>	☞성령을 통한 예수 시인
▶ 223.	<p>바울은 서로 고소하고 반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참된 사랑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라고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13:13)</p>	☞사랑에 대한 설명
▶ 224.	<p>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믿음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15:17)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0)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p>	☞부활의 첫 열매되신 그리스도
▶ 225.	<p>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비유하여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을 설명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후5:1)</p>	☞땅의 집과 하늘의 집
▶ 226.	<p>“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예수를 모신 자는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의 삶은 보잘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이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6:9~10)</p>	☞예수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 227.	<p>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마치면서 1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 이 축복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 축복하는 기도(축도)의 전통이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13:13)</p>	☞축도의 기원
▶ 228.	<p>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1:7~8) 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이것을 잘못 가르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단호히 말한다.</p>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
▶ 229.	<p>바울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2:16)</p>	☞믿음으로 의롭게 됨
▶ 230.	<p>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p>	☞예수를 통한 새로운 삶

▶231.	하박국의 기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3:11)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232.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의미 있는 시간이 온 것을 ‘때가 차매’ 로 성경은 말한다. 그 때에 우리의 구속자 예수가 오신 것이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4:4)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를 양아들 삼아 주셨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4:6)	☞하나님의 때
▶23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자유를 얻었으므로 그것으로 방종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5:13) 이런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5:22~24)	☞자유주시는 예수와 9가지 성령의 열매
▶234.	바울의 자랑은 세상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한 예수의 십자가 뿐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6:14)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
▶235.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앓은뱅이인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바울은 쓰스(제우스)와 허메(헤르메스)로 추앙 받는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 한다. 그때 바울은 자신들도 인간임을 강조하며 제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전한다. 그 후 유대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 루스드라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다 버렸다. 루스드라에서 받았던 들팔매의 상처와 흉터가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아직도 그의 몸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6:17)고 고백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바울
▶236.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1:4~5)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
▶237.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 (엡1:22~23)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몸인 우리를 죄로 인해 죽어 버린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2:1)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238.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2:8~9)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239.	예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2:14) “또 십자가로 이 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2:16)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배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엡3:12) 예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화목케 하신 예수의 십자가

▶ 240.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 이것은 모두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주어진 것이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4:11~12)	☞ 교회의 다양한 직분
▶ 241.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3~17)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비유로 영적 싸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 영적 전신갑주
▶ 242.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교회에 보낸다. 신약에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한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인데 이것을 목회서신이라 한다.	☞ 옥중서신과 목회서신
▶ 243.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2:5~11)	☞ 예수의 마음
▶ 244.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3:8)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학문과 세상 지식을 예수를 알고 난 후 보잘 것 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알게 된 후 세상 것을 배설물로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3:20)	☞ 그리스도의 가치
▶ 24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1:15~17)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며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고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 만물의 창조자 예수
▶ 246.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3:5)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이 땅에 있는 것에 현혹되어 탐심을 품는 것이 곧 우상숭배이다.	☞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 24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 하나님의 뜻
▶ 248.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며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잘못된 신앙임을 지적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살후3:10)	☞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
▶ 249.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2:4~5) 하나님은 예수를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이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를 통해 죄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 중보자 되신 예수
▶ 250.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후3:15)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251.	<p>“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엄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딤후2:2~4)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것을 권한다. 그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다.</p>	<p>☞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p>
▶252.	<p>“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3:15~17)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p>	<p>☞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p>
▶253.	<p>“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4:7~8)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해 달려온 길이 영적 싸움이었고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길이었다고 고백한다.</p>	<p>☞예비된 의의 면류관</p>
▶254.	<p>“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2:14)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믿음을 더한다.</p>	<p>☞그리스도의 속죄 사역</p>
▶255.	<p>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주인의 재물까지 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와 함께 변화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편지가 빌레몬서이다.(빌레몬서)</p>	<p>☞회개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냄</p>
▶256.	<p>“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p>	<p>☞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p>
▶257.	<p>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시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때 떡과 포도주로 반겨 주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7:1)</p>	<p>☞그리스도의 예표 멜기세덱</p>
▶258.	<p>“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히8:6)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증보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다.</p>	<p>☞언약의 증보자 예수</p>
▶259.	<p>“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날날이 말할 수 없노라” (히9:2~5)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과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p>	<p>☞성막과 언약궤에 있는 것들 소개</p>
▶260.	<p>“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9:1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9:22) 구약 제사는 날마다 짐승을 죽이므로 제사를 지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회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p>	<p>☞단번에 속죄하신 예수의 피</p>
▶261.	<p>“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내생을 준비해야 한다.</p>	<p>☞죽음 후의 심판</p>

▶262.	<p>“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10:20) 구원의 길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둘째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의 육체의 상징으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한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구약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이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다. 이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p>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설명
▶263.	<p>“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11:1)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11:4) 최초의 제사를 지낸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 하셨다.</p>	☞믿음의 증거
▶264.	<p>“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믿어야 한다.</p>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265.	<p>모세는 금은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11:26)</p>	☞모세의 믿음
▶266.	<p>“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13:8) 세상은 변한다. 사람들도 변한다. 그러나 예수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p>	☞변함없는 예수
▶267.	<p>“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1:15) 욕심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며 사망에 이르는 시작이다.</p>	☞욕심의 결과
▶268.	<p>참된 경건은 약자를 돌아보고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되어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1:27)</p>	☞참된 경건을 설명
▶269.	<p>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행함이 없다면 실상은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약2:14)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2:26)</p>	☞행함이 있어야 하는 믿음
▶270.	<p>“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3:2) 사람이 실수하나 무엇보다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가 작은 혀이기 때문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약3:6)</p>	☞혀를 제어하라
▶271.	<p>“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1:19)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우리 구원이 완전무결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벧전1:23)</p>	☞예수의 피로 구원얻음
▶272.	<p>“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2:2)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태어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다.</p>	☞말씀을 통해 성장함

▶273.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모두 예수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기독교인의 정체성
▶274.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4:7~8) 이제 세상의 심판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 예수의 사랑
▶275.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벧전5:3~4)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는 권세를 부리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럴 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관
▶276.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벧후3:7~10)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이 구절에서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둑같이 불원간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날을 바라보아야 한다.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
▶277.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1:8~9) 세상 사람은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와 죄를 고하면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심
▶278.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 하셨다. 우리도 그 분을 따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을 말한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3:18)	☞진실한 사랑
▶279.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일4:2) 거짓 영은 예수가 인간이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한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했다.	☞성육신하신 예수
▶280.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4:7~8)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281.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4:10) 사랑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282.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4:15)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찾아와 거하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283.	<p>“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일 4:18)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며 이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4:20)</p>	<p>☞하나님 사랑하면 형제사랑으로</p>
▶284.	<p>“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5:4)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p>	<p>☞세상을 이기는 믿음</p>
▶285.	<p>“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5:13~14)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p>	<p>☞영생을 주시는 말씀</p>
▶286.	<p>“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이1:7)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에 대하여 경계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강하게 말씀한다.</p>	<p>☞육체로 오신예수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p>
▶287.	<p>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파송한 순회 설교자들을 영접하고 후원해 줄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p>	<p>☞범사에 잘되기를 간구</p>
▶288.	<p>사도요한은 밋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한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낸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1:11)</p>	<p>☞소아시아 7교회</p>
▶289.	<p>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전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2:2~3)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2:4) 주님은 에베소교회에 ‘처음사랑을 버렸다’ 즉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다.</p>	<p>☞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p>
▶290.	<p>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2:9~10)고 말씀하셨다. 서머나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렸고 감옥에 들어가고 때론 순교까지 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교회와 함께 7교회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p>	<p>☞서머나 교회의 칭찬</p>
▶291.	<p>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순교를 당했고, 그 환난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2:14)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책망 받았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였으나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던 악한 선지자였다.</p>	<p>☞버가모 교회의 책망</p>

▶ 292.	<p>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이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계2:19)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2:20~21)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이 있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음행한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거절한 것이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던 왕비이다.</p>	▶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
▶ 293.	<p>주님은 사데 교회에게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다. 사데 교회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였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3:4)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사데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가 몇 명 있다고 하셨다. 사데 교회가 거의 대부분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래도 몇 명은 신실했다는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3:5) 비록 죽은 교회 같을 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해주셨다.</p>	▶ 사데교회의 책망과 칭찬
▶ 294.	<p>“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계3:7)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윗의 열쇠는 왕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3:8)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비록 적었지만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잘 한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먼 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다.</p>	▶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
▶ 295.	<p>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모두 알고 계신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역겨웠음을 지적하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3:15~16)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더불어 교제하시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말씀하신다.</p>	▶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
▶ 296.	<p>계시록 7장에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144,000명은 이스라엘의 1지파에서 12만 명씩 12지파의 인 맞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단들은 이 숫자를 절대화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144,000명뿐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144,000명을 각 지파별로 5~8절까지 언급하고, 9절에서 흰 옷 입은 구원 받은 자들의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계7:1-12)</p>	▶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

▶297.	<p>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국(천상교회)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7:16~17) 천국에 가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p>	☞천국에서의 위로
▶298.	<p>“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12:9) 사단을 지칭하는 4가지 용어들이 나온다. 특히 옛 뱀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게 했던 사단을 상기시킨다.</p>	☞사단의 최후 심판
▶299.	<p>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성도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세마포를 입고 참여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iero다 하더라” (계19:8)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랑이시다. 신부는 교회이다.</p>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모습
▶300.	<p>“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22:20)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 요한은 바로 ‘마라나타’로 대답한다. 마라나타는 아랍어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란 뜻이다.</p>	☞마라나타